

**ABSTRACT**

**“Making Time their king”: The Christmas Culture and Politics of the Early Modern Inns of Court in Thomas Middleton’s *Masque of Heroes***

**Bomin Kim**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ultural work done by Thomas Middleton’s *Masque of Heroes* in the context of Christmas culture and politics at the early modern Inns of Court. Christmastide at the Inns of Court was a season reserved for the cultivation and exercise of the younger Inns of Court men’s aristocratic cultural capital by means of revels and Christmas commons. The custom of Christmas keeping by the junior constituencies came under increasing pressure of their governors to suppress or circumscribe the seasonal junior autonomy. By making the end of Christmastide the subject matter of his Christmas masque, Middleton aesthetically mythologizes this major source of intramural political tension at the Inner Temple whereby the ambiguity of his allegorical masque allows for an imaginative and imaginary room for contending parties to come to an agreement on Christmas in and through the masque itself.

**Key Words** | Thomas Middleton (1580-1627), *Masque of Heroes* (1619), non-courtly masque, Inns of Court, Inner Temple, Christmas commons, revels



## 「애플튼 하우스에 대하여」: 앤드루 마블의 스토아적 자기 훈련\*

이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 I

앤드루 마블(Andrew Marvell, 1621-1678)은 1650년 가을 경 그 얼마 전까지 의회군 총사령관이었던 토마스 페어팩스(Sir Thomas, Lord Fairfax) 경<sup>1</sup>의 딸 마리아(Maria)의 가정교사로 취직하여 1653년 까지 페어팩스의 애플튼 하우스(Appleton House)에 체류하였다. 이 시기동안 그는 가장 왕성한 시작(詩作) 활동을 하였는데, 장원시(country house poem) 장르에 속하는 「애플튼 하우스에 대하여」(“Upon Appleton House, To My Lord Fairfax”; 이후 「애플튼 하우스」로 약칭.)<sup>2</sup>도 이 기간 중에 썼다. 이 작품은 애플튼 하우스와 전원 영지에 대한 묘사,

\* “이 연구는 201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sup>1</sup> 1650년 찰스 2세가 스코틀랜드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자 럼프 의회(Rump Parliament)는 스코틀랜드를 선제공격하기로 결정했는데, 토마스 페어팩스경은 도발하지 않은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을 침략으로 간주하고 이 전쟁에 반대하여 의회군 총사령관직(Lord-General of the New Model Army)을 사임하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넌 애플튼(Nun Appleton)에 정착했다. 그리고 아일랜드 정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개신한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이 그 총사령관직을 맡게 되어 궁극적으로 공화국의 호민관(Lord Protector)이 되기 위한 입지를 굳히게 된다.

사색, 명상을 통해 페어팩스 장군과 그의 가문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후견인에 대한 서사적 찬양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가진 이 시에는 시적화자의 순전한 자기 탐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작품의 삼분의 일이나 될 정도로 시인의 명상적인 자아성찰들이 담겨 있어,<sup>3</sup> 이 시는 마블의 “일종의 영적 자서전”(Molesworth 149), “자신과 공직 생활에 대한 자신의 소명”(Wallace 232)에 대한 시이며, 시인 자아의 심연에 대한 탐색은 이 시가 그리는 찬양의 지형도의 일부(Cotterill 105)라고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적 화자의 성찰과 명상이 두드러지는 『애플튼 하우스』를 마블의 스토아적 자기 훈련을 위한 글쓰기의 산물

<sup>2</sup> 『애플튼 하우스』의 장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가장 전통적인 견해는 G. R. 히바드(G. R. Hibbard)의 견해로, 그는 마블의 『애플튼 하우스』가 벤 존슨의 『펜츠허스트에게』(“To Penshurst”)에서 시작된 영국 장원시 전통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 전통을 변용시켜 “새롭고 다른 그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본다. 반면에, 알라스테어 파울러(Alastair Fowler)는 히바드 식의 장르 분류와 그가 정의한 이 장르의 정체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파울러는 마블의 『애플튼 하우스』는 전원의 삶, 영지와 집, 주변지역과 환대하는 안주인, 은거생활 등등에 대한 찬양들은 모두 전원시(georgics)의 특성들이므로 이 작품을 포함하여 비슷한 성격의 시들을 영국식 전원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제임스 터너(James Turner)도 파울러처럼 이 작품을 장원시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작품은 청교도 전쟁 후 유행한 “전형적인 장소묘사의(locodescriptive) 시”인 지형시(topographical poem)에 속한다고 규정한다(61-62).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장원시라는 장르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으나 장원시에 반영된 “새로운 귀족계급과 새로운 토지 자본주의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에 의해 끊임없이 재형성되는 질서”(58)의 관점에서 소위 장원시라고 불린 시들을 단일한 전통 속에 묶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하여 그는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애플튼 하우스』는 내란과 공화정, 왕정복고를 통해 근본적으로 바뀌는 잉글랜드의 정치 경제적 질서의 과도기의 시로 본다. 윌리엄 알렉산더 맥클렁(William Alexander McClung)의 경우에는 『애플튼 하우스』가 장원시 전통을 잇는 시인 동시에 지형시(154)로 두 장르의 혼합물이라고 본다. 또한 니겔 스미스(Niegel Smith)는 이 작품을 “전망시”(prospective poem)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부른다. 전망시는 다시 새로 유행하던 장르로 관찰자의 눈에 비친 경치들이 불러일으키는 환상들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주석을 시도하는 시이다(Smith 213). 그밖에 데릭 허스트와 스티븐 즈빅커(Derek Hirst and Steven Zwicker)는 장르론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논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논문 요약에서 이 작품을 “장원 서사시”(country-house epic)라고 부르기도 했다(247). 본 논문에서는 『애플튼 하우스』가 기본적으로 장원시 전통에 속하며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변용된 점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간주할 것이다.

<sup>3</sup> 물론 화자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마블 특유의 아이러니와 위트로 인해 이 화자를 마블과 온전히 동일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궁중가면극(masque)과 연극적 요소들을 고려하면 화자를 이 작품무대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마블의 페르소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Molesworth). 하지만 이 작품이 후견인 페어팩스를 칭송하는 시로서 시인과 후견인의 관계를 강하게 의식한 작품이란 점을 감안할 때 마블과 시적화자는 충분히 동일시될 수 있다.

로 보고, 스토아적 자기 훈련의 관점에서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마블의 스토아사상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우선 사십 여 년 전 존 맬컴 월러스(John Malcolm Wallace)가 마블이 페어팩스와 크롬웰 두 사람을 섬긴 것은 어느 한 사람에 대한 변절이 아니라 운명에 순명한 립시우스적 처세라고 마블의 스토아적 태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256). 그 삼십 년 후 앤드루 쉬플릿(Andrew Shifflet)이 마블은 『애플튼 하우스』에서 스토아주의가 중요시하는 은거의 삶의 활동성과 스토아적 명상의 전투성을 통해 페어팩스의 은거 생활 선택을 변호하고 있다는 논의를 전개하였다(36-53). 시인과 후견인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면 쉬플릿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데, 그는 이 작품의 스토아적 특성들을 페어팩스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더욱이 이 작품에 나타난 스토아적 정원의 개념 외에 다른 스토아적 요소들은 그다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시적화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애플튼 하우스』는 마블이 립시우스의 권고대로 전원에서의 명상과 사색 속에서 쓴 스토아적 자기 훈련의 산물인 “불멸의 가치를 가진 몇몇 시들(DC 2.3, 80) 중 한 편이다.

마블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페어팩스와 일견 평화로운 전원의 삶을 공유했던 이 시기는 그에게 시대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유럽 여행기간 동안(1643-47) 30년 전쟁(1618-1648), 잉글랜드로 돌아와 찰스 1세의 처형과 내란 그리고 압박한 전쟁의 위기 상황들과 같이 계속되는 일련의 재난과 위기들을 겪었다. 그는 그 와중에서 모순과 역설, 아이러니,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그 상황들을 헤쳐갈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지침들을 모색해야했을 것이다. 약 한 세기 전 네덜란드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던 인문학자 유스투스 립시우스(Justus Lipsius)는 스토아철학<sup>5</sup>에서 삶의 위안과 지침을 찾

<sup>4</sup> 특히 마블이 『애플튼 하우스』를 쓴 1651년 여름에는 스코틀랜드 침공을 준비하는 크롬웰의 군대에 맞서 스코틀랜드 군도 국경을 향해 진군하여 몇 주 후라면 요크셔(Yorkshire)에 위치한 년 애플튼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페어팩스의 영지 바로 동쪽에서는 수평파들(Levellers)이 공유지의 사유화(enclosure) 문제로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Smith 212; Hirst and Zwicker 250-53 참조.

<sup>5</sup> 고전 스토아주의(classic stoicism)와 구별하여 립시우스의 스토아주의(stoicism)는 신스토아주의(Neo-stoicism), 르네상스 스토아주의(Renaissance stoicism)라 불리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리스 로마의 스토아주의는 고전 스토아주의라 칭하고 립시우스의 스토아주의는 그냥 스토아주의라 칭하기로 한다. 또 스토아주의를 스토아사상, 스토아철학, 스토아

았다. 그가 “공공 재난에 대한 위안”을 찾아 “섭리, 정의와 운명의 저 가파른 곳들을 오르며”(“De constantia”; “To the Reader” 29)<sup>6</sup> 탐구한 삶의 그리스도교적 스토아주의 원칙들은 비슷한 상황에 있던 근대초기 유럽인들에게 정치적 윤리적 행동과 가치의 좌표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Forster, “Meditation”; Leira; Salmon; Sellars, “Justus Lipsus’s *De Constantia*”; Oestreich). 16, 17세기 영국의 지성인들과 문인들도 이 스토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Braden; Monsarrat; McCrea). 먼사랏트는 스토아주의의 엄격한 특성들이 서정성과 감성이 강한 시와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당시 스토아주의가 주로 산문과 서간, 특히 극작품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2-9), 마블도 립시우스적 스토아사상의 영향을 받았다.<sup>7</sup> 본 논문은 『애플튼 하우스』가 마블이 스토아적 자기 훈련으로서 쓴 시라는 관점에서 이 서정적 사색과 명상의 시에 나타난 위기와 재난의 시대의 지침으로서 스토아적 특성들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마블에게 있어 시 쓰기를 통한 스토아적 삶의 훈련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 II

스토아학자들에게 있어서 철학은 사변적인 논쟁이 아니라 “삶을 잘 살아가는 법칙 혹은 기술”(Sellars, *Stoicism* 81)이다. 행복하게 잘 사는 삶이란 덕(virtue)을 추구하는 윤리적 삶으로, 스토아주의자들은 그 삶을 위해 내적인 가치들을 중요

---

적 원칙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것이다.

<sup>6</sup> 『항심에 대하여』(*De constantia*)는 이후 『항심』으로 약칭한다. 『항심』으로부터 인용은 JSellars, ed., *Justus Lipsius: On Constancy. De Constantia Translated by Sir John Stradling* (1595) (Bristol: Phoenix Press, 2006)에 의하고, DC 권.장, 쪽수로 표기한다. 립시우스는 『항심』에서 실파한 스토아주의를 이후 1604년 출판한 『스토아철학 입문』(*Manductio ad stoicam philosophiam*), 『스토아 물리학』(*Physiologia stoicorum*)에서 더욱 발전시켰다. 이 저서들은 아직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으므로, 본 논문에서 이 저서들에 나타난 립시우스의 스토아사상에 대해서는 제이슨 루이스 손더스(Jason Lewis Saunders)의 설명에 의존하였다.

<sup>7</sup> 1595년 존 스트래들링 경(Sir John Stradling)에 의해 처음 영어로 번역된 『항심』이 1653년, 1654년에 새 영어번역으로 출판되었다(DC introduction, 주 24와 22쪽; Sellars, *Poetics* 341). 당시 위기의 시대에 『항심』이 영어로 다시 번역되었다는 것은 스토아주의가 영국인들에게 매우 강한 호소력이 있었음을 잘 말해주며, 쉬플릿도 지적했듯이(37), 마블 또한 『항심』을 읽었고 립시우스의 스토아주의에 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시하고 그 밖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도덕적으로 선도 악도 아닌 개인에게 해도 이익도 끼치지 않은 무관한 것들(things indifferent)로 간주한다(Saunders 101-10). 삶의 기술로서 스토아철학은 그 원칙들에 따라 사람의 삶을 변형시키는 기술이다. 그 변형을 위해 스토아학자들은 스토아 원칙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원칙들을 의식적으로 행동과 사고에 적용하여 그것들이 무의식 속에 습관화되어 일상생활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게 하는 끊임없는 자기 훈련과정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세네카는 그 훈련 방법으로 명상과 성찰을 강조했는데(Sellars, *Stoicism* 47) 세네카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은 립시우스도 『항심』에서 스토아적 훈련으로서 명상과 성찰, 특히 정원과 같이 조용히 은거할 수 있는 곳에서의 명상과 성찰을 강조한다(DC 2.1-3, 75-81). 이러한 훈련을 통해 스토아주의자들은 외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개의치 않고 항심(constancy)으로 신이 창조한 세상에서 덕을 추구하고 자연, 이성, 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 노력한다.

마블이 총사령관직을 사임하기 전 잉글랜드를 구원할 목시적 지도자, “백마를 탄 사람”(Rider of the White Horse)이었던 페어팩스(Brand 493)와 맺은 인연은 이후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 발판이 될 경력이었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블은 전쟁영웅의 앞날보다 어쩌면 더 불안정하게 시대의 운세에 따라 여기 저기 가정교사직을 옮겨다녀야할지도 모르고 청교도 혁명의 위기만큼이나 개인적으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있었을 것이다. 립시우스의 스토아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고전 스토아학자 세네카(Seneca)는 고요 속의 한가함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공직에서 은퇴한 사람들 뿐 아니라 공직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온전히 진리에 대한 명상에 전념하고, 삶의 기술을 찾고, 은거 속에서 그것을 행하기”(Seneca, “De otio” ii.1-iii.1)를 권고하였다. 세네카의 권고대로, 공직에서 물러난 페어팩스 뿐 아니라 마블에게 있어 년 애플튼 전원생활은 전쟁과 갈등, 혼란과 재난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지혜탐구와 자기 단련, 자기성찰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쉬플릿은 이미 스토아적 현자의 모습을 지닌 페어팩스나 소녀 마리아는

<sup>8</sup> 허스트와 즈빅커는 마블이 페어팩스와 오랜 인연을 이어갔다고 설명한다. 마블이 페어팩스 딸의 가정교사가 된 것은 페어팩스가 마블의 고향인 헐(Hull)의 지사(Governor)였다는 인연으로 가능했을 것이다. 이 경력으로 인해 마블은 크롬웰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을 것인데, 마블은 페어팩스의 사위 버킹엄 공작(Duke of Buckingham)과도 충직한 관계를 맺었다. 마블에 대한 페어팩스의 적극적인 후원은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리처드 크롬웰(Richard Cromwell) 시절 마블이 의회에 입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265).

마블이 주교자 하는 스토아적 가르침을 사실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이 이 작품의 윌트의 일부라고 지적하지만(53), 마블의 스토아적 가르침, 페어팩스의 장원의 “엄격한 훈련”(discipline severe; 723)<sup>9</sup>은 결국 이 작품의 “가장 훌륭한 청중”인 자기 자신(Shoenfeldt 244)을 위한 것이다. 립시우스는 세네카가 권고한 고요한 여가의 장소로 정원을 적극 추천하였는데 여유롭고 한가한 넌 애플튼 정원은 바로 스토아적 정원과 같은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 스토아적 “정원의 진정한 목적과 유용성은, 즉 고요함, 세상으로부터 물러남, 명상, 독서, 집필”을 하는 데 있고, 정원은 또한 “뮤즈의 집이고 지혜의 양육소이자 학교”(DC 2.1, 80)이다. 그리하여 애플튼 하우스에 체류하면서 마블은 활발한 시쓰기로 명상과 성찰의 열매를 맺었다.

스토아주의에서는 윤리적 삶을 위해 우주와 자연에 대한 탐구, 자연 법칙의 작용을 다루는 자연철학을 연구하여 자연에 맞갖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행복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하다. 스토아적 지혜의 삶이 자연을 따라 사는 삶이라면, 자연에 따라 사는 법은 “자연의 법칙을 궁구하고 이 자연의 법칙(즉 신의 뜻)과 인간 행동 규범 사이의 상호관계를 배움”(Saunders 85)으로써 익힐 수 있다. 그런데 자연이 선하고 명예로운 것을 인간에게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인간이 자연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을 관찰하고 비교하고 추론하여, 즉 유비에 의해 지혜를 파악한다(89). 립시우스는 『항심』에서 현재 네덜란드와 유럽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거 역사, 특히 로마의 역사에서 유사한 사건과 인물들과 현재 상황과 인물들의 유비관계를 통해 지혜를 찾고 있다.<sup>10</sup>

『애플튼 하우스』에서 시적 화자가 하는 중요한 활동이 바로 자연을 관찰하여 그 안에서 자연의 법칙에 따른 삶의 지혜를 파악하는 명상과 성찰활동이다. 시인이 바라보며 사색하는 주요 장면에는 자연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그 법칙과 인간 행동간 상관관계에 대한 탐구, 사건들의 유비를 통한 의미 추론, 자연 속에서 명

<sup>9</sup> 『애플튼 하우스』를 비롯하여 마블의 시작품들로부터 인용은 Nigel Smith, ed.에 의한다.

<sup>10</sup> 이 과거와 현재의 유비, 즉 시대적 유사성(similitudo temporum)을 발견하는 것은 인문주의자들이 받은 훈련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인문주의 역사의식의 전형적 개념인 고전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의 단계가 지나고, 현재 상황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찾으려 고전을 연구하는 정치화된 인문주의로 넘어가면서 그 기본 연구방법이 바로 시대적 유사성의 개념이었다(Effinger 164; Oestreich 1-4).



상을 통해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들에 대한 탐구, 재난과 위기의 상황에 흔들림 없는 항심과 덕에 대한 추구하고 같은 스토아적 요소들이 깊이 배어있다. 그리고 이 관찰과 명상, 성찰 그리고 시쓰기는 시인의 스토아적 자기훈련과정이라 할 수 있다.

스토아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은 자연을 따라 덕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이 기본 원칙은 애플튼하우스 건물에 대한 칭송에서 잘 드러난다. 건물의 소박함을 그 주인의 내적인 덕들과 연결시켜 칭송하는 장원시의 기본 관습은 마블이 불안한 현세에서 언제 없어질 지도 모르는 물질적인 재화들보다 내적인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스토아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틀이 된다. 시인은 이국적이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표현하는 인간의 무절제, 허세, 교만을 질타하며(9-24), 『애플튼 하우스』의 “이 소박한 구조 안”(Within this sober frame; 1)에 담긴 집주인 페어팩스의 자기 절제와 소박, 겸손의 덕을 칭송한다.

화자가 건물에서 발견한 또 다른 덕은 조화와 질서이다(25-32). 스토아주의에서 자연은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물질세계로서의 자연, 그 안에 표현된 창조주의 질서와 조화, 나아가 창조주 신 자체를 의미하는데, 이 자연을 따르는 삶이 곧 가장 복된 삶이다(Sellars 67). 따라서 조화와 질서를 가진 애플튼 하우스는 자연을 따르는 주인의 가치관의 구체적 표현이며 그 집에서 사는 페어팩스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이 집을 묘사하는 “orderly”(26) “sober”(28) “strait”(31) “strain”(32)과 같은 단어들은 주인의 엄격한 자기 절제(self-control)의 덕을 표현한다. 자기 절제는 스토아 사상의 주요한 덕으로 작은 도시 로마에서 출발하여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힘으로 간주되었던 덕이다(Braden 73-74). 그리하여 시인은 건물에서 드러나는 자기 절제의 덕을 통해 페어팩스 장군을 자연스럽게 로마제국의 건국자인 로물루스에 비유하게 된다(40). 게르하르트 오이스트리히(Gerhard Oestreich)에 의하면, 로마 문화의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들, 특히 권위(auctoritas)와 훈련(disciplina)의 개념은 고전적 양식을 국가와 군대, 삶의 방식에까지 구체적으로 적용시켰던 근대초기 유럽에서 역사와 정치사상의 기초였으며 스토아적 항심에 기초한 지혜를 삶으로 구현하는 “정치적 인간”(political man; 6)은 공직자의 이상이였다. 페어팩스의 소박하고 절제된 집은 그 주인이 바로 자기 절제의 스토아적 덕목을 갖춘 이 이상적인 정치적 인간임을 보여준다.<sup>11</sup>

이 작품에서 후견인에 대한 공적인 찬사의 수사학은 위기의 시대에 마블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일종의 복화술적인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이 쓰일 1650년대 초 잉글랜드 상황은 마블이 페어팩스에 대해서 혹은 아직 공직에 입문도 하지 않은 가정교사에 지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에 결코 우호적이지는 않았다. 마블은 당시 잉글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 페어팩스와 크롬웰의 공직생활의 운명이 엇갈리는 미묘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후원 정치의 줄다리기를 하며 문학적 정치적 경력을 조심스레 닦아가고 있었다. 『애플튼 하우스』를 쓰기 약 1년 전 마블은 『아일랜드에서 귀환한 크롬웰에 바치는 호라티우스식 노래』(“An Horatian Ode upon Cromwell’s Return from Ireland”)에서 개인 정원(private gardens)을 가꾸며 침묵 속에 지내다가(29-30) 공직생활로 돌아와 아일랜드 징벌의 개선장군이 되어 스코틀랜드 침공을 준비하던 크롬웰을 찬양한 바 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을 반대하고 전원으로 돌아가서 크롬웰이 버렸던 “평화의 불명예스런 기술”(the inglorious arts of peace, 10)을 연마하는 페어팩스를 찬양하는 일, 이 모순된 시적 과업은 마블에게 있어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블은 후견인 찬양의 관습이 주요한 특징인 장원시 특성들을 이용하여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웠을 시기에 정치적 의심과 압박감을 피하고 거리감과 해석상 난해함과 애매모호함<sup>12</sup> 속에 자신을 감추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마블이 찬양하는 한 시대를 풍미한 영웅도 결국 “까불려 다니는 한 점 먼지”(the wanton Mote of Dust; 22)이며, 그의 집은 그가 이 지상에서 잠시 머물도록 신이 “은총의 표지”로 마련한 “여인숙”(78-80)에 지나지 않는다. 3연 무덤의 이미지(18)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삶의 일시성, 유한성은 그것을 능가하는 보다 큰 힘, 인간의 삶과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운명, 필연의 힘들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운명과 섭리의 문제는 스토아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탐구 주제였다. 랍시우스는 인간의 지혜와 의지, 능력들을 한 순간에 어리석고 헛되고

<sup>11</sup> 이를 표현하는 마블 문체의 “절제”와 “간결하고 표상적인 통제”(Coiro 239)는 마블이 페어팩스의 삶과 영지를 관찰하며 익히는 스토아주의 정치적 이상들의 문학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sup>12</sup> “포착 안 되는 미끄러움,” “불안정성,” “수는 같은 모호함”(Shoenfeldt 246), “압축된 모호함의 엠블럼”(Coiro 238) 등으로 표현되는 불명확함은 마블 시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간주된다.

부질없게 만드는 우연한 불행이나 감당할 수 없는 전쟁, 천재지변들과 같은 재난 그리고 인간 역사와 우주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구체적인 동인을 운명(fate, destiny) 혹은 운명과 동일시되는 필연(necessity)으로 간주한다(DC. 1.14-22). 립 시우스는 피코(Pico)의 표현을 빌려 운명은 “신의 지혜에 따른 구성과 질서”라 설명하고 “섭리의 움직일 수 없는 판결”(DC 1.19, 66)이라 정의한다. 17세기 영국이 겪은 인간 능력과 이해를 능가하는 우여곡절로 인해 정치도 “섭리적 관점”을 강조하였는데 마블도 인간 삶, 역사를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운명과 섭리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Wallace 257).

이 인식은 “이 집의 운명의 전개과정”(The progress of this Houses Fate; 84)에 대한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마블은 운명을 페어팩스 가문사의 서사적 전개의 동인으로 간주하는데, 헨리 8세 때 수도원이 해체되면서 윌리엄 페어팩스(William Fairfax)와 비어 쓰웨이트츠(Vere Thwaites)의 소유가 된 이 건물의 과거사를 마술에 걸린 미인을 구해내는 영웅의 이야기로 재구성한다. 쓰웨이트를 구하려는 페어팩스와 수녀들과의 의서사적인(mock-epic) 전투 묘사에 나타나는 “희극적 예능의 천재”인 화자의 어조와 태도는(Skulsky 591) 이 에피소드에 담긴 종교분쟁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잉글랜드 종교개혁을 일면 패러디하고 있는 듯하다. 마블이 이 에피소드에서 보다 진지하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들에서 인간의 목적과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 노력을 조롱하는 듯 자신이 정한대로 그 역사들을 움직여 나가는 운명의 힘이다. 마블은 결코 저항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 운명이나 섭리가 인간사를 지배한다는 의식 속에서 그 사건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신의 지혜를 제대로 읽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Il-counselled; 239) 수녀들은 일어나는 사건에서 신이 정한 “운명을 거슬러”(against Fate; 247) 싸운다. 수녀들이 운명의 경로를 바꾸려 아무리 방해하고 막아도 윌리엄과 비어의 결혼은 “오래전 예언되었던 한 후손, / 정복된 브리튼을 가로질러 말달리는 바로 그 사람”(one, as long since prophesied, / His Horse through conquered Britain ride; 245-46)인 토마스 페어팩스 장군이 태어나기 위한 서사적 운명을 위한 것이었다. 신이 영원에 이르기까지 확고히 변함없고 언제나 뜻하고 예견한 일에서 흔들림이 없다면, 그 분이 선포한 일들, 즉 운명의 경로 또한 그런 것이다(DC 1.17, 62-63). 인간의 이해와 판단의 관점에서 볼 때 부조리하고 우연한 일들도 신과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즉 향심의 마음으로 보면

변함없는 질서 속에 이어지고 신이 정한 운명과 필연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시적 화자가 훈련해야 할 것은 위기의 사물들과 상황들 속에서 운명의 힘을 인식하고 그 힘의 존재를 인정하며 보이는 현실에 대해 무심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흘러가듯 지나가는 삶의 순간들 속에 작용하는 운명에 대한 시인의 의식은 자연에 대한 관찰에서 더 깊고 날카로워진다. 우연한 사건 상황들을 이끌어가는 운명과 섭리에 대한 통찰 훈련을 통해 스토아주의자는 신에게 온전히 순종하여 재난과 격변의 시대에 “외적인 혹은 우연한 사건들로 인해 들뜨거나 기죽지 않은 마음의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힘”(DC 1.4, 37)인 항심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목초지에서 시인은 “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풀의 심연”(the abyss . . . / Of that unfathomable grass; 369-70), “이 시에서 가장 길고 불가해한 부분”(Brand 503)으로 들어간다. 이제 내러티브에서 페어팩스는 사라지고 시인은 작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일인칭으로 드러낸다(369). 시인은 현재 목초지에서 행해지는 일상적인 노동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듯한 일들을 관찰하며, 기억 속에서 인류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불러내어 그 사건들을 현재화한다. 마블은 역사의 현재성, 역사 속에 작용하는 운명과 섭리의 현재성을 표현하기 위해 현재의 상황 뿐 아니라 유비가 되는 사건들도 현재로 구술하고 있다.

목초지에도 우연, 운명, 섭리와 같은 힘들이 상황들을 지배한다. 초원의 풍경에서 시인이 찾아내는 유비들은 성경의 사건들, 특히 구약에서 전개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사의 사건들이다. 항심의 눈으로 볼 때 사소한 일상 사건들에도 구원사적 의미가 숨어 있다. 시인에게 있어 곧 추수를 앞둔 초원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인들이 당당하게 건너가는 갈대바다(389-92; Exodus 14:21-25)이고 또 그들이 전쟁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땅과 같다. 풀 베는 노동자들은 높이 자란 풀이 넘실대는 넓은 초원과 비교할 때 마치 거대한 가나안 족들과 비교된 “메뚜기 같은”(like grasshoppers; 371) 이스라엘인들이다.<sup>13</sup> 그러나 신앙의 힘으로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땅을 점령하듯 풀 베는 이들은 풀들과 전투를 벌이며 초원을 정복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자행하는 “대 살육”(massacre; 394)의 낯질에 베여 “때 맞지 않은”(untimely; 399) 죽음을 당한 뜸부기들은 “검은 불길함 같은 운

<sup>13</sup>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정찰대를 먼저 가나안으로 파견하여 그곳의 정황을 알아보는데, 돌아온 정찰대는 그곳 나필족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 인들이 메뚜기 같다고 보고했다(Deutonomy 13:33).

명”(fate as black forbode; 400)을 겪은 듯해도, 그들의 죽음은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인들을/폴 베는 노동자들을 먹이기 위해 야훼가 하늘에서 내린 메추라기와 만나라는 섭리 속에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약탈과 살육행위로 점철된 가나안 정복 전투와 같은 풀베기는 결국 폴 베는 이들의 승리로 끝나고 그 승리는 인류역사의 방향을 바꾼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과 같은(428) 의미를 가진다.

시인은 초원의 풍경에서 과거의 사건들 뿐 아니라 현재 사건과의 유비도 발견한다. 정복당해 평평해진 벌판을 바라보면서 마블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진을 치고 전쟁의 위협을 가하는 수평파들(Levellers)의 모습도 발견한다(449-50). 만일 초원의 상황을 “내란의 정치적 알레고리”(Wallace 245-56)로 본다면, 전원의 노동인 풀베기 작업과 구원사적, 역사적 사건과의 유비들은 현재 위기의 사건들이 유비된 과거의 사건들처럼 극복되고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관찰자의 확신을 표현한다. 마블은 이 역사적 유비들을 통해 전원에서 행해지는 노동처럼 하찮고 일상적인 일들도 인류역사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구원사적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야할 방향을 향해 흘러간다는 내적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소소한 일상 일들의 영적 의미들에 대한 인식은 자신과 잉글랜드가 처한 종교적 정치적 분쟁의 미래에 대한 긍정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립시우스는 『항심』에서 시인처럼 현실 삶의 의미를 수용하고 신의 뜻에 자신과 삶을 맡길 수 있는 내적인 평정심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 정원과 같은 장소로 물러나 조용히 머물 것을 충고한다. 특히 애플튼 하우스의 정원과 숲이 이 작품에서 립시우스적 정원과 같은 장소이다. 립시우스는 『항심』에서 정원을 스토아적 덕의 단련 장소로 이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sup>14</sup> 덕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원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주는 “감각들의 내적인 간지러움과 즐거움”에 빠져 정원을 “허영”과 “나태”(DC 2.2, 77)의 장소로 이용하는 에피쿠로스적인 태

<sup>14</sup> 『항심』에서 립시우스는 정원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스토아주의와 융합시켜 도피적인 에피쿠로스적인 정원을 지혜와 덕을 추구하는 장소로 변모시키으로써 서양 사상사 뿐 아니라 정원 역사(庭園歷史)에 공헌하였다(Morford; Forster).

도에 빠지지 말아야한다. 정원에서 행한 정신적 영적 활동의 열매들은 “무기 저장고에 있는 무기들이며, 언제든지 운명의 힘과 변화에 대항하여 내 손이 사용하도록 준비된 무기들이 된다(DC 2.1, 80).” 따라서 정원에서 명상과 사색은 내적인 전투로, 이 내적 활동은 공적인 활동, 외적인 전투 못지않게 중요하게 된다.

애플튼 하우스의 정원은 우선 페어팩스에게 있어서 스토아적 자기 훈련의 구체적인 장이다. 페어팩스의 정원은 성채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349-50) 그 정원의 성안에서 장군은 “대양을 호령했음직한 힘”(Power which the ocean might command; 352)으로 “야심의 잡초를 제거하지만 양심을 경작하고 있다”(Ambition weed, but Conscience till; 353). 의회군 총사령관이었던 그의 정원에는 “포수들”(firemen; 305)인 꽃들이 아침이면 이슬에 젖은 “총포의 약실”(its Pan; 295)을 헛살로 말려 “그 탄약통”(its Flask; 296)을 신선한 향기로 채워, 장군과 그 부인이 지나갈 때면 “엄청난 탄약”(great a charge; 300)을 장전하여 그들에게 “향기로운 일제 사격”(fragrant volleys; 298)을 한다. 정원과 전쟁이 결합된 이 심상들은 “르네상스 정신에 깊숙이 자리 잡은 스토아주의와 전투의 열망 사이의 동맹관계”(Braden 74)를 잘 표현한다. 이 묘사들을 통해 마블은 페어팩스 장군의 은거는 도피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비드(Bede)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영국의 오랜 정체성인 낙원으로서의 영국(Staley)이 필요로 하는 내면의 꽃인 양심을 피우는 도덕적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옹호한다. 즉 페어팩스는 전원에서 영국을 낙원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블이 정원을 전투, 전쟁의 심상으로 묘사한 것은, 쉬플릿의 주장대로, 마블이 스토아적 명상의 활동성의 관점에서 페어팩스의 은거생활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 전투의 심상들은 마블의 자기 훈련을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터너의 주장에 따르면, 마블이 전쟁과 정원이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요소를 터무니없이 엮어놓은 것이 아니라 당시 유럽과 영국의 전쟁 상황에서 실제로 존재하였고 전투와 전쟁에 대한 교육은 당시 교육과정의 일부였으므로 교사였던 마블이 이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이러한 전쟁 용어, 심상들을 사용했고 그 사용은 적절하다(“Warlike”). 그런데 마블이 결혼 적령기에 다가선 마리아에게(당시 12세) 전투와 전쟁 교육을 했을 가능성은 적고, 이 작품을 헌정했던 총사령관 페어팩스 경을 학생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터너가 지적한 교육적 목적은 마블

자신을 위한 것이다. 스토아주의 교육의 목표는 개인을 “스토아적인 틀을 가진 지극히 엄격하고 절제된 사나이이다음, 요컨대 이성에 맞을 내린 성격”(Oestreich 29)을 가지고 “자신을 책임지고, 감정을 절제하며 투쟁할 준비가 되어있는 시민”(30)인 정치적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다. 스토아주의 교육의 예와 모델은 전투나 전쟁이었다. 이성과 덕, 내면을 단련하는 것은 스토아주의자가 “합리적인 사고를 위협하는 맹목적인 정열과 감정들을 제어하여 궁극적으로 영적이고 도덕적인 자유”(35)를 얻게 하며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전투이다. 따라서 스토아적 정원의 유용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전쟁과 전투의 심상으로 표현된 정원은 자연의 사물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빠져 그것들이 주는 즐거움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하지 않도록 마블이 이성으로 자신의 감각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쉬플릿처럼 페어팩스의 변호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터인 정원은 은거의 삶 속에서 운명이 가져올 삶의 부침을 견디어 내기 위한 엄격한 훈련 장소이고<sup>15</sup>, 시인의 스토아적인 자기 훈련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마블이 자연의 감각적인 아름다움에 탐닉하려는 자신과의 싸우며 페어팩스를 모델로 한 정치적 인간이 되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는 투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애플튼 하우스에서 오롯이 시인 자신만을 위한 스토아적 은거의 장소는 정원이 아니라 숲이다. 목초지에서 시작된 화자의 일인칭 단수는 이후 풍경묘사에서 공동체적인 일인칭 복수와 혼용되었다가, 숲에서는 다시 일인칭단수만 사용된다. 추수가 끝나고 마치 창조의 첫 순간처럼 혹은 새로운 싸움이 벌어지기 전 비워진 투우장처럼 비어있는 초원에(441-47) 홍수가 나고<sup>16</sup> 시인은 노아시대 홍수로 인해 방주로 피신하듯 숲으로 피신한다. 화자가 피신한 오래된 울창한 숲은 은유적인

<sup>15</sup> 페어팩스 장군은 총사령관직을 사임하면서 잠시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1654년 의회로 돌아가 보다 활발한 공직 생활을 했다. 그는 내란에서 당연히 의회군을 위해 싸웠지만 찰스 1세의 신속한 처형에 반대하였고 왕당파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으며, 궁극적으로 왕정복고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Hodge 133-34).

<sup>16</sup> 앨런 그레이(Allan Gray)는 이 홍수 사건이 페어팩스가 내란에서 거둔 초기 승리들 중 하나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1643년 7월 페어팩스가 혈에 당도했을 때 퇴각하던 왕당파 군대가 혈의 의회군을 포위하였다. 페어팩스와 그의 아버지는 9월 경 혈 강과 험버(Humber)강의 수문을 열고 독을 허물어 혈 주위에 홍수가 나게 하여 왕당파 군대를 진창 속에 빠지게 하였다. 페어팩스가 일으킨 홍수로 인해 마블의 고향인 혈은 왕당파의 공격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레이는 이 홍수 에피소드가 페어팩스의 승리를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171-72).

로 페어팩스와 비어 두 가문의 결합을 상징한다(“double wood”; 489). 신의 진노로 인한 정화의 홍수와 같이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정국에서 마블이 애플튼 하우스에 머무는 것은 그에게 노아의 방주로 피난해 들어온 것과 같았을 수 있다. 토마스 캐리(Thomas Carew)도 『섹섬에게』(“To Saxham”)에서 건물을 노아의 방주에 비유하는데, 캐리의 시에서는 방주가 피신장소라기 보다는 온갖 동물들이 주인과 손님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들어오는 장소이다(18-26). 이와 달리 마블의 시에서 숲은 홍수나 그 외의 외부 재난으로부터 온전히 시인을 보호하는 방주이며 시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오롯이 홀로 명상과 사색을 할 수 있는 립시우스적 정원이다.<sup>17</sup>

울창한 숲 속에서 시인이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것은 나이팅게일의 노래이지만(513), 시인은 나이팅게일 보다 “더 슬프지만 훨씬 더 듣기 좋은 소리”(A sadder, yet more pleasing sound; 522)를 가진 들비둘기의 노래를 자신의 노래로 선택한다. 시인의 들비둘기 선택에 대해 비평가들은 주목하지 않았는데, 시인의 선택은 진솔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노래하는 새는 시인의 상징으로 시인이 택한 새는 곧 그의 정체성이다. 나이팅게일은 고전 신화 필로멜라(Philomela), 프로크네(Procne)와 테레우스(Tereus)의 이야기에서 비극적인 아테네 공주 필로멜라가 변신한 새이다. 나이팅게일은 변신 전에 공주였으며 그녀의 매우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이에 비해 들비둘기는 성경에서 양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이 성전에 바치는 희생 제물로(Leviticus 12:8), 루가 복음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봉헌할 때 함께 바친 한 쌍의 비둘기(Luke 2:24)를 연상시킨다. 들비둘기는 마블은 자신이 나이팅게일과 같은 비극적 대 사건의 희생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이 헌신할 공무, 즉 영적으로 거룩한 구원업적의 의미를 가질 그 직무를 위해 바쳐지는 소박하면서도 자발적인 희생 제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들비둘기로서 시인의 모습은 시인으로서 자신의 위상에 대한 마블의 인식 또한 함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블의 시는 사후에야 출판되었고 동시대인들에게

<sup>17</sup> 매우 내성적이고 사적인 성격의 마블에게 있어 정원 보다는 홀로 있는 숲은 그에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었을 것이다. 마블의 사망 직후 출판된 존 오브리(John Aubrey)의 기록을 보면, 마블은 수줍은 성격에 말수가 매우 적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혼자 숙소에서 술을 마시며 기분전환을 하며 시적 감흥을 키우곤 했다(“Mr Andrew Marvell”; Maltzahn 218).



그리고 18세기에도 마블은 시인으로서보다는 위대한 산문작가로 특히 정치 산문으로 더 알려졌으며(Carey 19-27), 그 후 200여 년 동안 시인 마블은 잊혔다가 20세기에 들어서야 제대로 관심이 받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이후 T. S. 엘리엇트(Eliot)의 견해가 시인 마블에 대한 평가를 주도해오고 있는데, 마블은 “다소 크기가 작은 시인”(Essays 294)이고 17세기 시인들 중 위대한 시인도 개성 있는 시인도 아니라는(Carey 33) 그의 평은 시인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선택한 들비둘기의 심상과 잘 맞는 듯하다. 마블의 이러한 솔직한 자기 평가는 가장 활발한 시작(詩作)활동을 했던 년 애플튼의 전원에서 자신과 삶과 역사와 구원 등 많은 문제에 대해 천착했던 그의 성찰들과 시작품들의 진정성과 진지함, 정직함을 더 잘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들비둘기에 이어 딱따구리에 대한 시인의 관찰 또한 주목할 만하다. 다른 동식물들에 비해 딱따구리에 대한 시인의 관찰은 비교적 길다(68-70연). 딱따구리는 나무들의 상태를 부리로 두드려보아 “속이 빈 떡갈나무”(hollow oak, 548)를 찾아내어 그 “병든 부분”(the tainted side, 550)을 쪼아 들어가 마침내 그 큰 떡갈나무를 쓰러뜨린다. 스토아주의에서는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의 상처도 받을 만한 연약한 부분이 없는”(Seneca, “De constantia” viii.3) 스토아적 현자처럼 “정열과 권력에의 의지를 통제”하고 “자기 성찰과 훈련, 관용과 절제”(Oestreich 9)를 키워 굳건히 서있는 것이다. 떡갈나무는 그 어떤 풍상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굳건함의 상징으로, 립시우스도 항심을 “높고 거대한 몸통”(DC 1.4, 37)을 가진 “저 아름다운 떡갈나무”(DC 1.4, 37)에 비유했다. 그런 떡갈나무가 작은 새의 부리 공격에 넘어가는 이유는 이미 나무속을 벌레가 갉아 먹어 나무는 겉껍데기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쓰러진 나무에 대한 묘사에 쓰인 “반역자,”(traitor; 554) “반역 처벌”(treason’s punishment; 560)과 같은 표현들은 볼 때 이 에피소드가 처형당한 찰스 1세와 왕당파의 패배와 같은 정치적 상황을 함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sup>18</sup> 그럴 경우 시인이 찰스 1세를 처형으로 몰고 간 의회파 사람들을 반역자라 부르는 것이고 벌레들이 결국 딱따구리

<sup>18</sup> 로버트 마클리(Robert Markley)에 의하면, 1500-1650년 사이 급격한 인구증가로 환경 훼손이 심각하였고 기본 자원, 특히 목재가 크게 부족하여 나무 심기 특히 떡갈나무 심기는 개인의 부뿐 아니라 해군력과 국제 무역에 의존하는 영국의 국가 정체성 강화와 직결된 문제였다(89-95). 이 관점에서 본다면 떡갈나무는 스튜어트 왕조나 그 왕조를 대표하는 찰스 1세, 나아가 영국이란 나라 자체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끼들의 먹이가 되듯이 그 반역자들도 처벌당한다는 예견을 하는 것이다. 『아이랜드에서 귀환한 크롬웰에 바치는 호라티우스식 노래』에서 마블이 왕의 처형에 대해 온전히 동의하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였다하더라도, 왕을 처형한 급진적인 의회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화정이 세워지는 현 상황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왕의 처형자들을 고발할 수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떡갈나무 에피소드는 종교 분쟁으로 인한 위협적인 군사대결과 그로 인한 비인간적인 불행과 재난의 상황에서 굳건하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열망을 지키기 위해서는 별레 제거 작업, 즉 인간의 외적 행동에 앞서 내면의 전투적 단련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항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숲 속에서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 자신을 “편안한 철학자”(easy philosopher; 561)라고 부른다. 윌러스는 시인의 편안함이 에피쿠로스적인 것일 수 있고(249),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은 마블이 “아이러니한 도피주의” 속에서 꿈의 세계를 탐구하고 있다고 본다(91). 그런데 그동안 이루어진 시적화자의 명상과 성찰을 통한 치열한 자기 훈련 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편안한 철학자”는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로부터 건전하게 물러난 장소”(DC 2.2, 80)에서 철학의 진정한 목적인 “태도의 개선과 감정의 절제” 속에 전쟁과 재난의 시기에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의 항구”(DC To the Reader, 29)에 도달한 스토아주의 철학자이다. 이 철학자의 자아는 『정원』(“The Garden”)에서 영혼이 새로 변하여 육을 벗어나 비상하듯(49-56) 새로 변신하고 육적인 세계, 지상의 세계를 벗어나 뿌리가 하늘에 박힌 나무처럼 자기 존재의 원형적인 모습과 조우한 듯하다(565-69). 플라톤주의적 심상으로 표현된 이 순간은 시인의 초월적, 신적 체험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뭇잎이 바람에 떨리지 않는”(575), 즉 지금까지 숲 밖에서 시인이 관찰한 변화와 생성의 유동성을 벗어난 정지의 순간으로 명상의 정점이다. 시인은 지금, 립시우스가 고요한 정원에서 누릴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지혜의 불전차를 타고 높이 완전히 황홀경에 빠진 듯한”(DC 2.3, 80-81) 지혜의 최고 상태에 있다.

스토아적 지혜의 최고 단계에 도달한 현자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불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Elijah; 2 Kings 2:11)와 같은 예언자이다. 그 침묵과 정지의 순간에 시인은 예언적 통찰력으로 역사와 삶의 의미를 읽어내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 흩어진 시빌/무녀의 나뭇잎들로  
 내 상상은 이색적인 예언들을 엮어내어,  
 마치 멕시코 그림처럼 모든 깃털들을  
 하나의 역사에 다 쓴다.  
 로마, 그리스, 팔레스타인이 이전에 말했던 것을  
 나는 이 가벼운 모자이크 속에서 읽는다.  
 자연의 신비한 책에서 잘못 판단하지 않고  
 읽어낸 사람은 세배로 행복하다.

Out of these scattered sibyl's leaves  
 Strange prophecies my fancy weaves:  
 And in one history consumes,  
 Like Mexique Paintings, all the plumes.  
 What Rome, Greece, Palestine, ere said  
 I in this light mosaic read.  
 Thrice happy he who, not mistook,  
 Hath read in Nature's mystic book. (577-84)

시인은 명상과 성찰, 관찰의 자기 훈련을 통해 자연의 법칙들 속에서 행동 규범이 될 덕을 탐구하고 우연인 듯 보이는 사건에서도 인간 문명의 역사와 관련될 수 있는 유비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훈련해왔다. 예언자 시인은 숲 속에 흩어진 나뭇잎들에서 그리스, 로마, 이스라엘의 역사 즉 서양 문명의 양대 산맥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역사를 읽어낸다. 지금까지 화자가 자연과 자연 속 인간의 활동들에서 인류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의 유비들을 발견했듯이 자연은 인간과 역사에 대한 많은 신비를 담고 있는 책이다. 스토아철학에서는 “신의 작품인 우리 주변 세상에서, 올바른 삶의 지침, 자연 즉 신에 따라 사는 삶을 보는 사람이 유일하게 행복한 사람”(Saunders 85)이므로, 마블은 자연을 통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신비에 가득 찬 역사적 상황들을 정확히 판단하여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세 배나 행복한 사람”이라 부른다. 시인은 숲에서 “모든 외적인 것들로부터 보호되고 그것들에게 답을 치고 자신 안에 자리 잡아 . . . 부서지고 괴로운 . . . 정신을 올바른 이성과 신에게 복종시키고 모든 인간적이고 지상적인 것들을 . . . 정신에 종속시키는”(DC 2.3, 82) 단계, 즉 스토아적 자기 훈련의 가장 높은 차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항심』의 모든 설명들이 명상과 성찰을 통해 항심을 얻어 운명의 질곡을 견디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듯이, 숲 속에서의 명상의 끝에 터져 나오는 시인의 가장 깊은 갈망은 항심을 향한다.

아침에는 여기 두 숲이 하나의 오솔길을 만드는 곳,  
 양편에 늘어진 수비병처럼  
 나무들이 영주 앞에서 갈라져  
 두 미로사이에 길고 쪽 곧은 실과 같이  
 오솔길이 이어지는  
 그곳에 내 사슬을 묶어주시오.  
 그러나 저녁에는, 최근 강물에 잠겼던  
 그곳에 나를 말뚝으로 박아주시오.

Here in the morning tie my chain,  
 Where the two woods have made a lane;  
 While, like a guard on either side,  
 The trees before their Lord divide;  
 This, like a long and equal thread,  
 Betwixt two labyrinths does lead.  
 But, where the floods did lately drown,  
 There at the evening stake me down. (617-24)

시인이 궁극적으로 머물고 싶은 곳은 울창한 숲의 미로에서 그를 빠져나가도록 인도하는 오솔길이다. 지금껏 숲이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었지만 그 안에서 만난 미로, 내적 자아 성찰의 미로 속에서 그는 또 다시 방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 미로를 빠져나가는 길을 만나 그 길에 온전히 머물고 싶어 한다. 이 갈망은 립시우스가 “이승의 삶의 모든 미로들 속을 방황하지 않게” 인도하는 “이 테세우스의 실”인 “항심과 덕”으로 “확고하고 움직일 수 없는”(DC 1.5, 39)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던 그 갈망이라고 할 수 있다. 박힌 말뚝이 되고 싶은 마음 또한 외부의 사적 공적 재난들로 의기소침해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마음의 힘인 항심에 대한 갈망이다. 시인은 주위에서 온통 맹위를 떨치고 있는 자연의 엄청난 소음들과 재난들을 무심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역경을 조용히 참아 받고 변영은 침착하게 견디며 그 어느 쪽에도 굴복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운명의 역경들 가운데서도 온

전히 변함없이 있을 수 있기를”(Seneca, “De constantia” vi.2) 원하는 것이다.

홀로 물러나 고요한 명상과 성찰을 통한 자기 훈련으로 얻은 내적인 향상은 개인에게 자기 절제의 힘을 준다. 이 자기 절제력은 역사를 바라보는 비전에서 운명과 함께 역사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긍정이기도 하다. 운명은 필연과도 같으며, 그것들은 신만이 가진 영원한 지식과 해안의 능력인 섭리가 그 의지에 따라 구체적 사물과 사건들 속에 나타나도록 정한 질서이다(DC 1.17. 63). 따라서 그 질서는 인간의 눈, 이해, 판단으로 볼 때 아무리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혹은 우발적인 것 같아도 영원한 질서 속에서 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모든 일들은 신의 섭리와 뜻에 따라 운명적으로 일어난다. 그렇다면 인간은 영문도 알 수 없는 운명과 필연에 자유의지가 옥죄여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인 듯하다. 고전 스토아철학에서는 이러한 결정론적인 우주 질서를 주장하지만, 그리스도교에 스토아사상을 접목시킨 립시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한다.<sup>19</sup> 신은 운명에 대한 인간의 선택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지만 인간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인간도 그 운명을 강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신은 악의 원인도 공모자도 아니다. 운명이 역사의 첫 번째 동인이라면 인간의 의지가 두 번째 동인이다. 그 영원한 질서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명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DC 1.20, 70-71).

앞서 페어팩스 가문의 성립 에피소드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절대적 행로가 강조되었다. 숲속에서 자신의 내면세계에 몰입하여 깊은 예언적 통찰에 도달했던 시인은 작품의 마지막에 이르러 자신 만의 세계에서 나와 작품의 주요 목적인 후견인 찬양으로 다시 돌아간다. 페어팩스 가문에 대한 묵시적 비전에는 운명과 함께, 인간의 삶과 역사를 움직이는 또 다른 동인으로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선택이 강조된다.

그로부터 어떤 보편적인 선을 위하여,  
사제가 그 성스러운 봉오리를 자를 것이다.  
그 때 즐거운 그녀 부모는 가장 기뻐하며,  
운명을 선택으로 삼을 것이다.

<sup>19</sup> 이 차이는 고전 스토아주의와 립시우스의 스토아주의 사이의 결정적 차이라 할 수 있는데, 립시우스는 신이 운명에 종속된다는 고전 스토아적 견해를 거부하고 자유의지 뿐 아니라 우연적 상황(contingency), 기적들(miracles)도 인정하였다(DC 1.18, 65).

Whence, for some universal good,  
 The priest shall cut the sacred bud;  
 While her glad parents most rejoice  
 And make their destiny their choice. (741-44)

년 애플튼의 영지를 물려받을 아들이 없었던 페어팩스는 가족 친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외동딸 마리아가 결혼하여 낳을 남자 후손들에게 이 영지가 물려지도록 법적 조치를 취했다. 마리아는 페어팩스 가문의 나무에서 잘려 결혼으로 다른 나무에 접붙여질 것이다. 마블은 페어팩스 가문과 이 영지의 영광스런 구원적 미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신이 정한) 운명과 (인간의) 선택의 역동적인 관계의 산물로 보고 있다. 아들이 없는 상황을 생명을 주관하는 신의 뜻, 운명으로 받아들인 페어팩스 부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숙고와 선택”(DC 1. 20, 70)을 통해 애플튼 하우스와 영지를 자기 가문의 다른 남자 친척이 아니라 딸 마리아가 결혼할 가문의 아들들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하였다. 마블은 페어팩스의 결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역사의 구체적 상황들이 신의 섭리에 의해 인도되나 또한 그 운명의 상황들 속에서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 또한 역사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 IV

인간의 최선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운명에 의해 재난과 불행이 닥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의 선택은 역사의 동인이 되어 마리아 페어팩스의 애플튼 하우스 영지가 “낙원의 유일한 지도”(Paradise's only map; 768)가 될 수 있다. “그러나”(769) 미래의 역사는 인간의 기대나 예상과 다른 아이러니를 연출할 수도 있다.<sup>20</sup> 립시우스가 『항심』 1권의 마지막에 인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운명이 가져오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신과 시간에 맡기라고 충고했듯이(DC 1.22, 72-73), 마

<sup>20</sup> 마리아 페어팩스는 1657년 조지 빌리어즈, 버킹엄 공작 2세(George Villiers, Second Duke of Buckingham)와 결혼했고, 한 때 서로 싸운 왕당파 귀족과 의회파 총사령관 딸의 이 결합은 결혼으로 재산과 작위를 재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고 할 수 있다(Williams 57). 그런데 방탕한 공작은 마리아에게 빚만 남겼고 이 작품의 예언적 찬양과는 달리 마리아는 1704년 후사 없이 죽었다(Erickson 161-62).

블은 작품의 마지막 연에서 시간 속에 서서히 움직이는 상황을 항심을 둔 무심(indifference)의 태도로 관조하며 스토아적 자기 훈련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이제 촉촉이 젖은 연어잡이꾼들은  
 코러클 배들을 들어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신을 신은 대척지 사람들처럼,  
 머리에 카누를 신었다.  
 이 이성을 가진 수륙양용의 존재들은  
 얼마나 거북이처럼, 그러나 그렇게 느리지는 않게, 걸어가는지!  
 들어갑시다. 어두운 반구가 이제  
 그들 중 하나처럼 나타나기 시작하니.

But now the salmon-fishers moist  
 Their leathern boats begin to hoist;  
 And, like antipodes in shoes,  
 Have shod their heads in their canoes.  
 How tortoise like, but not so slow,  
 These rational amphibii go?  
 Let's in: for the dark hemisphere  
 Does now like one of them appear. (769-76)

마블은 “천국의 중심”(Heaven's centre; 767)인 페어팩스 가문의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찬양에서 반전의 연결부사와 함께 현실로 돌아와 흘러가는 시간 속의 상황을 바라본다. 빛과 어둠의 경계 시간 속에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인 연어잡이꾼들이 등장한다. 또한 느릿느릿 어두워져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체가 아니라 반구(半球)이며 그 반대편에, 이곳이 어둠이라면 빛 일 반구대척지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홍수 이후 정화된 애플튼 영지의 들판을 흘러가는 강이 하늘과 땅을 담아 “안인지 . . . 밖인지”(638) 경계가 없어지듯이, 마블은 이 마지막 연에서 그의 시들을 관통하고 있는 “주관과 객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의식”(Hill 77)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어둠과 빛의 경계, 인간과 동물의 경계, 물과 땅의 경계, 이곳과 그 대척지, 사고와 인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심의 마음으로 시인은 외적인 상황들을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절대화하지 않은 채 운명과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역사의 아이러니의 가능성

을 열어두고 시간의 경과에 상황을 맡기고 있다. 어둠이 깔린 반구가 이성을 가진 수륙양용의 존재처럼 나타나는 마지막 두 행에서 마블은 “오랫동안 충실한 [스토아적] 훈련을 통해 적의 어떤 공격도 견뎌내고 녹초로 만들 수 있는 사람”(Seneca, “De constantia” x.1)으로 자신과 잉글랜드의 아직 어둠에 덮인 듯한 상황을 향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마블은 애플튼 하우스 영지 “안에서”(Within; 1) 잉글랜드가 처한 위기와 재난의 상황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도 그것들로부터 보호받을 방주에 있는 것과 같은 안전함을 가졌을 것이다. 그곳에서 마블은 불행과 고통, 전쟁과 재난의 시기에 장소의 이동보다는 마음의 굳건함과 항구함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며 정치적 삶을 위한 준비를 위해 고요한 은둔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스토아적 신념을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 전원에서 가장 왕성한 시작(詩作) 활동을 했으며, 『애플튼 하우스』는 전원에서 명상과 사색을 통해 자연과 신과 지혜를 따라 사는 스토아적 자기 훈련의 산물이다. 마블과 같은 젊은이에게 있어 전원에서 스토아적 훈련의 목표는 미래의 정치적 투신이다. 1654년 크롬웰의 문하생 윌리엄 더튼(William Dutton)의 가정교사가 되고 1657년 크롬웰 정부의 공직자가 되며 1659년 고향 혈을 대표하는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어 이후 20년 넘게 공화정과 왕정복고의 격동의 시기에 정치 활동을 하였다. 낡은 애플튼에서 페어팩스와 공유한 은거의 시간은, 마블이 정치에 헌신하기에 앞서 “자기 해방을 통한 자아의 쇄신과 정치 사회에의 적극적인 참여”(Oestreich 18)를 목적으로 하는 스토아적 훈련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애플튼 하우스』는 마블 자신의 스토아적 자기 훈련의 시적 지형도이다. 마블은 『애플튼 하우스』의 성찰과 사색에서 나타나는 스토아적 자기 훈련을 통해 당시 아직 국민적 지지 기반이 약했던 공화정에 대한 정치적 투신에 그리고 자신의 미래의 정치 활동에 어느 정도 내적인 확신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 내적 확신은 가까운 미래에 그가 존 밀튼(John Milton)과의 친분을 통해 1652년에 크롬웰의 공화 정부에서 공직을 얻으려한 노력에서 입증된다(1653년 2월 21일. “Letter of Mr. Milton concerninge Mr. Marvaile.” Maltzahn 38). 또한 이 내적 확신은 이후 크롬웰 정부의 1주년을 기념하여 묵시적 언어로 전략적으로 크롬웰을 찬양 옹호한 『일주년』(“First Anniversary”)을 거쳐 공화정의 활동적인 공직자로, 의회파의 신념들을 옹호하는 팸플릿 집필자로 온전히 투신한 삶에서 보다 분명히 입증되고 있다.



주제어 | 앤드루 마블, 『애플튼 하우스』, (신)스토아주의, 유스투스 립시우스, 『항심에 대하여』, 자기 훈련.

## 인용문헌

- Braden, Gordon. *Renaissance Tragedy and the Senecan Tradition: Anger's Privilege*. New Haven: Yale UP, 1985.
- Brand, Clinton Allen. "'Upon Appleton House' and the Decomposition of Protestant Historiography." *English Literary Renaissance* 41 (2001): 477-510.
- Carey, John, ed. *Andrew Marvell: A Critical Anthology*. Harmondsworth: Penguin, 1969.
- Coiro, Ann Baynes. "The Achievement of Andrew Marvell: Excerpts from a Panel Discussion." *On the Celebrated and Neglected Poems of Andrew Marvell*. Ed. Claude J. Summers and Ted-Larry Pebworth. Columbia: U of Missouri P, 1992. 238-43.
- Cotterill, Anne. "Marvell's Watery Maze: Digression and Discovery at Nun Appleton." *ELH* 69 (2002): 103-32.
- Eliot, T. S. "Andrew Marvell." *Selected Essays*. London: Faber, 1932. 292-304.
- \_\_\_\_\_. "From 'Andrew Marvell,' a review of the Nonesuch Edition of Marvell (1923)." *Andrew Marvell: A Critical Anthology*. Ed. John Carey. Harmondsworth: Penguin, 1969. 58-60.
- Erickson, Lee. "Marvell's 'Upon Appleton House' and the Fairfax Family." *English Literary Renaissance* 9 (1979): 158-68.
- Forster, Leonard. "Lipsius and Renaissance Neostoicism." *Australian and New Zealand Studies in German Literature* 7 (1977): 201-20.
- \_\_\_\_\_. "Meditation in Garden." *German Life and Letters* 31.1 (1977): 23-35.
- Fowler, Alastair. "Country House Poems: The Politics of a Genre." *Seventeenth Century* 1 (1986): 1-14.
- Gray, Allan. "The Surface of Marvell's Upon Appleton House." *English Literary Renaissance* 9 (1979): 169-82.
- Hibbard, G. R. "The Country House Poem of the Seventeenth Century."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19 (1956): 159-74.

- Hill, Christopher. "'Society and Andrew Marvell' from *Puritanism and Revolution*." *Andrew Marvell: A Critical Anthology*. Ed. John Carey. Harmondsworth: Penguin, 1969. 73-102.
- Hirst, Derek, and Steven Zwicker. "High Summer at Nun Appleton, 1651: Andrew Marvell and Lord Fairfax's Occasions." *Historical Journal* 36.2 (1993): 247-69.
- Hodge, R. I. V. *Foreshortened Time: Andrew Marvell and Seventeenth-Century Revolutions*. Cambridge: Cambridge UP, 1978.
- Leira, Halvard. "At the Crossroads: Justus Lipsius and the Early Moder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 (2007): 65-88.
- Maltzahn, Nicholas von. *An Andrew Marvell: Chronolog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 Markley, Robert. "'Gulfes, Deserts, Precipices, Stone': Marvell's 'Upon Appleton House' and the Contradictions of 'Nature.'" *The Country and the City Revisited: England and the Politics of Culture, 1550-1850*. Ed. Gerald Maclean, Donna Landry, and Joseph P. Ward. Cambridge: Cambridge UP, 1999.
- McClung, William Alexander. *The Country House in English Renaissance Poetry*.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7.
- McCrea, Adriana. *Constant Minds: Political Virtue and the Lipsian Paradigm in England 1584-1650*. Toronto: U of Toronto P, 1997.
- Molesworth, Charles. "'Upon Appleton House': The Persona as Historian, Philosopher, and Prie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13 (1973): 149-62.
- Monsarrat, G. D. *Light from the Porch: Stoicism and English Renaissance Literature*. Paris: Didier-Érudition, 1984.
- Morford, Mark. "The Stoic Garden." *Journal of Garden History* 7.2 (1987): 151-75.
- Niegel Smith, ed. *The Poems of Andrew Marvell*. London: Pearson Longman, 2007.
- Oestreich, Gerhard. *Neostoicism and the Early Modern State*. Cambridge: Cambridge UP, 2008.
- Salmon, J. H. M. "Seneca and Tacitus in Jacobean England." *Journal of History of Ideas* 50 (1989): 199-225.
- Saunders, Jason Lewis. *Justus Lipsius: The Philosophy of Renaissance Stoicism*. New York: Liberal Arts, 1955.
- Sellars, John, ed. *Justus Lipsius. On Constancy. De Constantia Translated by Sir John Stradling (1595)*. Bristol: Phoenix, 2006.

- \_\_\_\_\_. *Stoicism*. Berkeley: U of California P, 2006.
- \_\_\_\_\_. "Justus Lipsius's *De Constantia*: A Stoic Spiritual Exercise." *Poetics Today* 28 (2007): 339-62.
- Seneca. "De constantia." *Moral Essays I*. Trans. John W. Basore. Cambridge: Harvard UP, 1928.
- \_\_\_\_\_. "De otio." *Moral Essays II*. Trans. John W. Basore. Cambridge: Harvard UP, 1935. 180-201.
- Schoenfeldt, Michael. "The Achievement of Andrew Marvell: Excerpts from a Panel Discussion." *On the Celebrated and Neglected Poems of Andrew Marvell*. Ed. Claude J. Summers and Ted-Larry Pebworth. Columbia: U of Missouri P, 1992. 243-47.
- Shifflett, Andrew. *Stoicism, Politics, and Literature in the Age of Milton*. Cambridge: Cambridge UP, 1998.
- Skulsky, Harold. "Upon Appleton House: Marvell's Comedy of Discourse." *ELH* 52 (1985): 591-620.
- Smith, D. K. "'Tis not, what once it was, the world': Andrew Marvell's Re-Mapping of Old and New in *Bermudas* and *Upon Appleton House*." *Seventeenth Century* 21 (2006) : 215-48.
- Smith, Nigel, ed. *The Poems of Andrew Marvell*. London: Pearson Longman, 2007.
- Staley, Lynn. "Enclosed Spaces." *Cultural Reformations: Medieval and Renaissance in Literary History*. Ed. Brian Cummings and James Simpson. Oxford: Oxford UP, 2010. 113-33.
- Turner, James. "Marvell's Warlike Studies." *Essays in Criticism* 28 (1978): 288-301.
- \_\_\_\_\_. *The Politics of Landscape*. Cambridge: Harvard UP, 1979.
- Wallace, John Malcolm. *Destiny His Choice*. Cambridge: Cambridge UP, 1968. 232-57.
- Williams, Raymond. *The Country and the City*. New York: Oxford UP, 1973.

**ABSTRACT****Marvell's Stoic Self-Discipline in "Upon Appleton House"****Jin-Ah Lee**

Andrew Marvell's "Upon Appleton House, To My Lord Fairfax" is a country house poem with the apparent purpose of praising Sir Thomas, Lord Fairfax and his family. However, the marked presence of the narrator poet in this poem invites us to listen to his ventriloquial voice that speaks of his endeavors to cope with "the force and mutability of fortune." Focusing on the narrator poet in this poem reveals the contours of Marvell's stoic self-discipline through his meditations and reflections in the garden-like countryside of Appleton House and its estate. Justus Lipsius's (Neo)stoicism, a philosophy that attempts to combine classical stoicism and Christianity to help the individual to live through religious wars and political conflicts, seems to be a guiding principle in Marvell's discipline for private and public adversities. "Upon Appleton House" is a topography of Marvell's stoic training to find a way out of and prepare himself for the future career of "political man" in the labyrinths of the English Revolution and its aftermaths.

**Key Words** | Andrew Marvell, "Upon Appleton House," (Neo)stoicism, Justus Lipsius, *De constantia*, self-discipline